

사 례 보 고 '미국에서의 도서관 역할과 미래' 에 대한 워크숍 발표내용 ①

지난 7월 20일 미국대사관 자료정보센터 주최로 "미국에서의 도서관 역할과 미래" 에 대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날 모임에는 약 100명의 공공, 대학, 전문, 특수도서관 사서 및 조사부 기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도서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도서관과 사서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하여 미국 도서관계 인사들의 발표에 이어 청중들간의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해외 도서관 인사들의 새로운 시각이 국내 도서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하여 이번 호에 게재한다.

■ 편집자 주

Multi Functioning

전문도서관을 엿보다



김 수 남*

"어머, 도서관에서 이런 음악까지 곁들인 대중행사까지도 하시네요? 정말 재미있어요." 지난 7월 미독립기념일 할리데이시리즈에 참가한 한 분의 반응이었다. 행사가 재미있다는 코멘트였겠지만, 도서관의 변신이 재미있게 보인다는 말씀으로 들렸다. 앞으로 미국대사관 자료정보센터 (Information Resource Center)가 어떤 기능으로 변화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no limit" (한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일이 다양하고 특수하기 때문에 현재 "multi functioning (다 기능 전문도서관)" 이라고 말하지만 multi functioning의 내용은 앞으로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해 갈 가능성이 많다. 이 글에서는 변화의 배경과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정보센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의 한 전문도서관의 변신 과정이 도서관의 미래를 엿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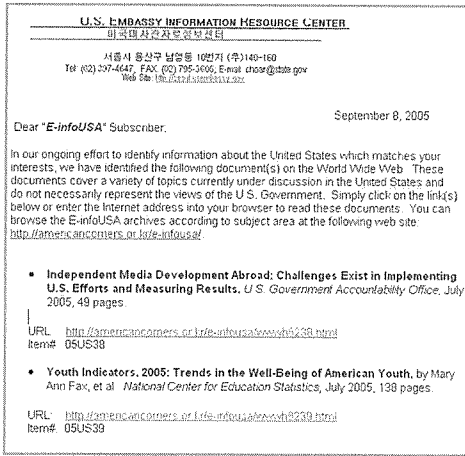
어떤 조직이든지 외부적으로 변화가 요구될 때 되도록 빨리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대사관 자료정보센터는 과거 7-8년에 걸쳐 역할과 기능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조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도 했지만, 대사관이라는 외교기관의 한 부서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한미관계와 미국의 대외정책의 커다란 틀 속에서 늘 변화를 종용받았다고도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자료정보센터의 전신이었던 서울 미국문화원 도서관은 40년 동안 미국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최초의 미국식 도서관으로 한국 도서관계에서 나름대로 샘플 역할을 했다. 해방 후 새로운 학문이 들어오고, 서양식 시스템이 유입될 시기에 이곳은 미국식 도서관의 좋은 벤치마킹 장소였다. 많은 한국의 도서관 관계자들이 도서관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할 때 이곳에 와서 자료의 선별과정, 주문방식, 색인방법, 이용안내 등에 대해서 자문과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미국대사관 자료정보센터 관장, KimSN@state.gov

지금의 자료정보센터는 과거 40여년 동안에 끊임없이 변화하였고, 최근 몇년의 변화의 내용을 기능, 자료의 성격, 인력, 업무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자료정보센터의 기능 및 인력의 변화



< E-infoUSA 샘플 >

첫째, 자료정보센터 기능의 가장 큰 변화는 이용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바뀐 점이다. 이에 적합하게 도서관의 호칭도 “미문화원도서관”에서 “공보원자료정보센터”로 바뀌었다.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대출업무와 참고봉사업무에 집중되었던 공공서비스가 '90년대 후반부터 차츰차츰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어 이용자의 요구가 있기 전에 필요할 만한 것을 가져다주는 “outreach (먼저 제공함)”의 서비스로 바뀌게 되었다. 이 변화는 199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다.

변화의 배경은 미국 정부가 선진문화를 소개하던 미문화원도서관의 역할이 하루가 다르게 개방적이고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미국의 정책과 미국사회를 알리는 홍보 기능으로 바뀌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였다. 이 때부터 자료정보센터는 “E-infoUSA” “Monthly Article Alert” 그리고 “Listserv”를 운영하며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데 치중하게 되었다. 먼저 제공하는 outreach 서비스의 특징은 회원 개인의 전문성과 분야에 맞춰서 개별화된 맞춤서비스로 자료를 보낸다는 점이다.

둘째, 내부적인 조직 변화 중의 혁신적인 것 중 하나는 자료정보센터가 서비스의 제공자 일변도에서 서비스의 수여자로 바뀐 점이다. 종전까지 주요 기능이었던 참고봉사서비스와 자료 지원 이외에 직접 행사를 기획하게 된 점이다. 지원만 해주다가 지원을 받는 입장으로 바뀌게 됨으로서 부서원들은 다양한 경험에 고무되었고, 행사 진행을 직접 추진해 봄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자료정보센터는 이러한 행사의 기획 추진에 더 박차를 가할 생각이며, 다른 부서와 차별화되는 행사를 기획하는 일이 성공의 열쇠임을 강조하고 싶다.



< 지난 7월 1일 자료정보센터에서 열린 미국독립기념일 할리데이시리즈 행사로 약 1600여명의 젊은 학생과 일반인의 참여가 있었다 >

셋째, 기능 중에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직원들의 통합전문사서화이다. 인터넷시대의 도래와 함께 일반인들의 리서치 기능이 차원을 달리하여 강화되고 있다. 사서들이 받는 참고봉사 질문도 과거와 비교가 안될 만큼 어렵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만큼, 자료정보센터 사서들이 전문적이고 특수한 내용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성의 확보는 자료정보센터의 참고봉사 서비스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가능하면 직원 개인의 분야를 전문화시켜 훈련시키되, 동시에 일인이 다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사서의 기능도 더불어 훈련시켜 일인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도록까지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핵심 직원이 따로 없이 모두가 핵심이 되도록 하고, 모두가 누구나의 백업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 자료정보센터와 같은 소규모 특수도서관에서는 효율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2. 자료정보센터의 자료의 성격

자료정보센터의 자료에 관해서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자료의 온라인화이다. 자료정보센터 일년 총예산에서 자료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0%이며, 30%는 다양한 행사 진행과 홍보용 안내 책자 제작에 사용하며, 10%는 직원 연수와 교육에 사용된다. 구입하는 자료의 성격을 구매 액수로 볼 때 프린트 자료는 60%, 디지털 자료는 40%를 차지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디지털자료 구입액수가 조금씩 늘어나리라 보지만 이미 커다란 전환을 이룬 후이고, 가능한 디지털 자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본다.

둘째, 저널의 온라인화로 참고봉사서비스 강화이다. 핵심잡지는 프린트와 온라인으로 동시에 구독하되, 가능하면 많은 저널을 온라인으로 구독하여 참고봉사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려 한다. 온라인 저널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회원들에게 원문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전문도서관에는 서비스 개선의 좋은 여건을 제공한다.

셋째, 가능한 모든 보유자료를 웹기반화한다. 사회가 복잡화되고 인터넷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일반인들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검색하는 것보다는 웹상에서의 방문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도서관이 이런 추세에 앞서 나가고자 한다. 오프라인 방문자 못지 않게 온라인 방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넷째, 보유자료를 특성화해간다. 자료정보센터가 보유 장서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경쟁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정자료의 특성화는 가능하다. 즉 미국정부관련문서와 자료에 있어서 자료정보센터는 국내의 어느 도서관보다 전문화되고 특수한 자료를 서비스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규모 도서관인 관계로 백화점식 도서관 보다는 부티크식 전문도서관을 지향하고 있다.

3. 자료정보센터의 업무의 변화

미대사관의 자료정보센터 업무는 크게 여섯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1. 자료 소개 등의 도서관 업무; 2. 리서치센터 업무; 3. 웹사이트 운영 업무; 4. 행사프로그램 추진 업무; 5. 외부 컨택트 개발유지 업무; 그리고 6. 홍보 업무이다.

일곱명의 직원이 이런 광범위한 업무를 추진하려 하니 위에서 말한 통합전문사서화가 아니될 수가 없다. 1, 2의 업무는 내용의 변화는 조금씩 있지만 전통적으로 미국문화원 시절부터 해오던 업무였다. 3, 4, 5, 6의 업무는 과거 5년에 걸쳐서 새롭게 주어진 업무이다. 다른 부서보다는 자료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이 인적 물적 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잘 이용할 것 같아서 새롭게 주어진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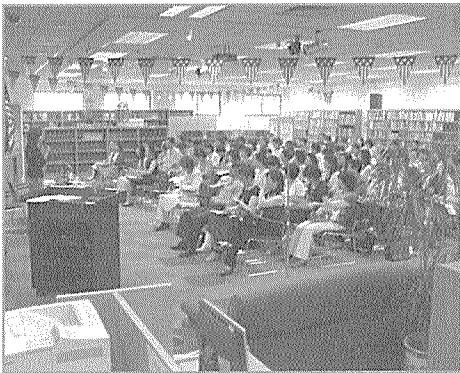
영상 매체의 확장, 인터넷 혁명, 디지털 콘텐츠의 편리성 등은 브릭엔월(brick and wall)로 된 도서관과 문자 매체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됐다고 많은 이들이 염려했다. 그러나 그런 염려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도서관의 변신과 변화는 눈부시다. 요즘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서관에는 DVD 등을 갖춘 디지털 룸,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한 컴퓨터 모니터가 수십대씩 즐비한 컴퓨터실, 오래된 자료들의 디지털 DB화 등 완벽하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변신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이처럼 미대사관 자료정보센터도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추세속에서 변화를 두손을 벌려 받아들이며 새로운 영역으로 변화를 시도하였고, 대부분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고 있다. 어떤 부분은 떠밀려서 하는 업무도 있었지만, 어떤 업무는 노력하여 우리가 획득한 것도 있다. 대표적인 것은 웹사이트 운영업무이다. 웹사이트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이 가능한 분야이고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 자료정보센터에서 맡게 되었다. 앞으로 웹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예정이다.

이상으로 미국대사관 자료정보센터에 대해서 multi functioning으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였다.

정리하자면, 자료정보센터의 핵심 역할은 미국대사관에서 참고자료 및 조사서비스 담당부서로서 미국 정책과 사회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확하며 권위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한국 국민과 기

관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핵심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의 지식 전문화와 직제의 간소화, 그리고 최고의 미국정보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자료의 온라인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미국에 대한 이해 증진에 다각적으로 힘쓰고 있다. 소규모의 자료정보센터이지만 multi functioning (다기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수행해냄으로써 없어서는 안될 꼭 있어야 할 부서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자 한다.



(7월 20일 열린 '미국에서의 도서관 역할과 미래'에 대한 워크숍)